



기도제목

1. 성도들이 집회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 헌신할 수 있도록
2. 청년들의 헌신과 방과후 학교 사역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3. 뎅기열 병으로부터 성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4. 칼리카불 교회가 부흥과 증축을 위해
5. 선교사 가정을 위해, 특별히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 두 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길 거리 곳곳에 모기로 인한 뎅기열을 주의하라는 홍보물과 함께 신문에도 방송에도 뎅기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열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각 교회마다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참된 회개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을 것을 눈물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회 가운데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치료되었고 서로 간증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청 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수 있는 방과후 학교 오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 헌금해서 방과후 센터를 열어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번 집회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 주님께 자기 시간을 드리면서 교회마다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워십 댄스를 준비 하고 미리 성탄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모든 모임들과 방과후 사역들이 잘되고 복음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CT 결과 암이 1cm 자랐고, 전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허리 통증과 식욕부진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최성목 선교사

중풍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튀르키예 이혜영 선교사

암이 온전히 치유되어 속히 튀르키예로 돌아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팍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종양 제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단지 신세포암 1기로 결과가 나와서 잔여 암세포 박멸을 위한 표적치료를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

치료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적치료만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길 기도해주세요.

튀르키예 양창모 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 오병수 선교사

선교사님께서 이석증으로 검진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태원 은택 선교사

허리 뼈에 금이 가서 수술을 받으신 후 재활 과정에 있습니다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GRACE 선교소식

매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 케냐 황광식 원지혜 선교사



세 계 경기 여파로 케냐도 물가가 날마다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고 특별히 소말리아에서 내려온 알샤밥의 공격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신 학교는 33명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대다수가 버스로 14시간의 거리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를 뒤로하고 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케냐 온 땅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 치원과 초등학교는 다양한 활동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초등 전 과정이 완성됩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신실하고 실력 있는 교사가 충원되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더불어 이 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팔레 교회 건축

교 회건축은 팔레 지역에 두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흘려 보내주신 귀한 사랑으로 벽돌이 올라갑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선한 사업에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글을 마치며

우 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기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김 어가는 가을, 주님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성령충만하여 승리하는 삶과 사역이 되도록
2. 신학생들의 사역과 학업을 위해서
3. 초등학교 고학년 교사 채용을 위해
4. 학교 도서관 책이 많이 채워지도록
5.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해주시도록
6. 11월 23일 유치원졸업식과 종업식에 은혜주시도록
7. 팔레 두 교회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완공되도록
8. 저희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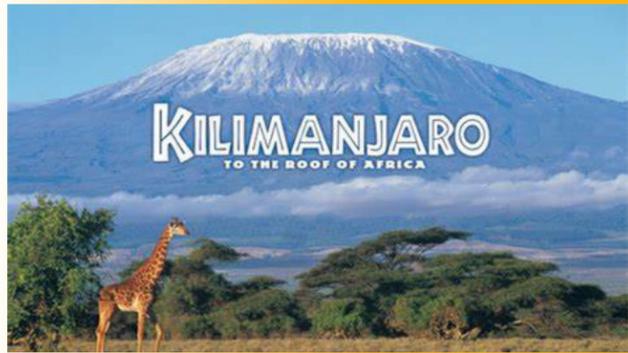
영혼을 찾아 산기슭을 거니시는 하나님

-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이병철 박미란 선교사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탄자니아는 인구비례 농지가 턱없이 부족해 현재 가난한 서민들의 삶이 심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지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굶는 아이들이 속속 보이니 마음이 아리고 도울 방법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방을 갈 때마다 두손 가득 옥수수과 식용유, 설탕을 가지고 허기진 성도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며 이 가정들에 작은 천국이 임하여 이들을 통하여 마을이,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소문이 난 유치원에 다른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이 저희 유치원에 넣어달라고 부모들이 찾아옵니다. 탄자니아에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1. 모스크의 소리보다 더 큰 주님의 애타는 음성이 울려 퍼지도록
2. 진행되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일이 되도록
3.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4. 주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린이 성경학교를 마친 후 몰려오던 아이들이 교회를 뒤로하고 주일이면 일하러 가는 현실을 마주하며 이들의 너무도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 하루 빨리 좋아지길 바랍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 요르단 700 000 선교사

밭에 이른비가 내리면 땅을 기경하고 밀과보리를 뿌립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고 땅을 기경하듯 저희는 이 땅의 영혼의 마음을 기경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부러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라크난민학교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 요르단으로 피신한 이라크 기독교 가정의 학생들이 매주 화, 토요일에 모여 공부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교회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다음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리아 난민학교 지난5월 새로 시작한 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32명의 학생이 매주 화, 금요일에 모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기독교는 1세기르 거슬러 올라갈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신교 기독교인수는 약8000(2019년)에 불과합니다.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 역시 주일 출석교인이 20명이 채 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노년층입니다. 저희는 요르단 현지교회의 다음세대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회복, 참 회개

<1분단상 110-11월호>

-김대규 장로

일반적으로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면에서 연관되어 쓰여지고 있다. 한마디로 굴절되었던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타락한 자리에서 벗어나 본연의 모습으로 돌이킴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려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짐을 가리키는 말이다. 구원의 역사인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번 기도를 하고는 진심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받았다고 생각되었던 이혼에 대한 잘못이 마음 한 구석에 주홍글자가 되어 마음을 찌르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 3년을 지나게 되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큰 얼음덩이가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듯 마음속에 엉켜붙은 주홍글자가 사라지고 날아오를듯한 홀가분 마음으로 용서받은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그 후 마음의 화평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이었다.

우리는 상처 난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매일 가장 기초적인 행동부터 해야 한다. 그것은 참 회개이다. 우리는 매일 기도로 회개와 회복을 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동일한 회개의 대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되새김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형식적인 회개로 반복되는 죄속에서 헤매고 있는 형국이다. 이래서는 참 회복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외면하신다.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인 회복은 다시 굴절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순환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은 불변하다. 그래서 나는 참 회복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의 불변하신 은혜 속에 거하게 되기에 참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상으로 느껴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온 것이다. 이 때 참 회개에 따른 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둘러 싸였던 돌무더기가 사라진 것 같은 가벼워진 마음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받은 참 회개이다. 그러나 상처나 흔적은 남게 된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회개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 한다. 참 회개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필수 조건이다. 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All-In해서 매달려 회개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이어야 한다. 진정으로 회개제목들을 도려내는 몸부림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중심을 보고 계신다. 참 회복은 참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참 회개가 없이는 참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참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 속에서 매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가장 복 된 것이다.

하지만 참 회복은 그리 쉽지가 않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와 믿음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참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철저한 회개 곧 참 회개가 있어야한다. 그 다음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참 회복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참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가 깨달아지고 자신이 그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지니고 있었던 버려야 할 습성과 버릇들이 회개한 후 반복치 않고 없어지는 변화를 말한다.

기도를 통해 용서라는 치유와 회복은 이루어졌어도 상처의 흔적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참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울이 되고 자극제의 역할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어느 학자는 “하나님은 온전한 그릇을 쓰시기보다는 손상된 그릇을 고쳐 쓰시기를 오히려 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온전한 그릇이 못된다. 쓸모 없는 그릇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릇들을 마다치 않으시고 붙이고 갈고 닦아 소중한 그릇으로 쓰시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